

행복 나눔터



정성기 목사
가평교회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 벌써 2년이 지나가고 있다. 누구도 생전에 한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슬픔 막히는 시간을 보내며, 힘들지만 모두 잘 견디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변이로 인하여 한시도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 일상 회복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언제 끝날지 아무도 알 수 없는 상황을 또 맞닥뜨리며 새해를 맞는다.

처음 지난 1년 동안은 너무 당황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지식도 없었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그런 가운데 교회는 온갖 욕을 다 먹었다. 수많은 교회와 애를 쓰고 정부의 방역 방침을 따라서 협조하며 더 조심하면서 여기까지 왔다. 하지만 역부족이었다. 그 와중에 교회에 대한 신뢰도는 대척 없이 더욱 떨어지고 말았다.

그런 가운데 ‘앞으로 1년을 또 이렇게 보내야 하는가?’라는 생각을 했다.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것만 같았다. 또 ‘이렇게 방역만 하다가 1년을 보낼 것인가?’ 분명 지난 1년과는 다르게 대처해 나가야 했다.

가장 먼저 떠오른 것은 코로나19로 인하여 갑자기 힘들어져 사람들에게 말도 못 하고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이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소상공인을 비롯하여 갑자기 일자리를 잃으신 분

들도 많을 것이다. 그래서 그들에게 조금이라도 마음을 전달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행복 나눔터’를 만들었다.

교회 마당 주자장 한편에 작은 공간을 만들었다. 그 안에 쌀 2kg과 마스크 5개를 누구나 가져가실 수 있도록 넣어 두었다. 일주일에 하루 화요일 오후 1시부터 오후 9시까지 열어 놓기로 했다.

혹시 사람들 눈치 보는 일이 없도록 어두운 시간 오후 9시까지 열어 두기로 했다. 한 사람이라도 따뜻한 밥을 지어 드실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었다. 그렇게 한 지 1년이 되었다.

꼭 필요한 사람들이 이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성도들에게만 광고했다. 주변에 어려운 이웃이 있으면 전해 달라고 했다. 예상 밖으로 많이 오셔서 가져가시기 시작했다. 너무 많은 분들이 오셔서 예산이 부족하여 추경예산까지 세우면서 계속 진행했

다. 중간에는 쌀 양을 반으로 줄이기까지 했다. 그런데도 오히려 더 많이 매주 100명 이상 오신다.

교회도 힘들지만 함께 고통을 나누고자 하는 마음으로 시작한 것이 결국에는 감사한 것뿐이다. 함께 나누는 성도들이나 오시는 분들 모두 감사한다. 성도들이 함께 목적헌금으로 동참해 주신다. 쌀로도 마스크로도 무명으로 지원해 주신다.

그뿐 아니라 믿지 않는 이웃도 함께 좋은 일 한다고 도우신다. 오셨다가시는 분 중에는 교회를 향해 감사의 인사 표시로 정중히 머리 숙이시는 분들도 계신다. 음료수를 사 오시는 분들도 계신다. 감을 따오시는 분도 계신다.

코로나19 상황에 교회와 나눔을 맡없이 이웃과 함께 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할 뿐이다.

하나님은 힘든 가운데 한 해 동안 우리 모두에게 작은 행복을 선물해 주셨다.

고통 함께 나누고자 만든

나눔터에 매주 100명 이상 방문

지역 주민들도 응원

목양칼럼

여기 있다 보라



이창교 목사
상남교회

21세기 뉴 밀레니엄이 시작된 지 벌써 22년째를 맞이하고 있고, 4차 산업 혁명은 다가올 세상이 아니라 이미 우리의 삶 속에 빠른 속도로 파고들어 익숙한 세상이 되어가고 있다. 아마도 인공지능과 인간수준을 능가하는 로봇들이 우리의 생활 속에 들어와 사람들의 역할을 대체하는 날이 곧 다가올 것이다. 유발 하바리의

고 물을 때, ‘여기 있다 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그것이 무엇일까?

요한복음 4장에 수가성의 한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 이 여인은 남편이 다섯이나 있었고, 현재 함께 사는 남자도 남편이라 할 수 없는 사람이었다. 오죽하면 뜨거운 정오에 마를 사람들의 눈을 피해 물을 길러 나온 여인이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불꽃이도 버려두고, 마을로 뛰어가서 사람들에게 ‘와서 보라’고 외친다. 겐 가이어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을 진정으로 아름답게 하고, 우리 인생에 진정한 기쁨을 가져다 줄 수 있고, 우리 인생을 가지 있게 해 줄 그를 내가 만났다. ‘와서 보라’ 내가 만난 예수! 그가 너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는 것이다.

교회가 할 일이 바로 여기에 있다. 인생의 본질적인 답을 찾지 못해 방황하는 영혼들에게 답을 줄 수 있는 것은 호모 데우스도, 인공지능도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한 교회만이 답을 줄 수 있다.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정신없이 세상을 쫓아가는 교회는 절대로 세상에 답을 줄 수 없다. 오직 복음의 능력과 성령충만함을 소유한 교회만이 ‘여기 있다 보라’고 답을 줄 수 있다.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여기 있다 보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는 그 날이 속히 오기를 바라는 바이다.

일찍이 윌리엄 맥나마라는 “현대 사회는 너무나 노쇠하여 있고 모든 것이 진부하고 지루하게 하는 것들로 가득차 있다. 이러한 지루한 세상에서 지루함을 느끼지 않기에는 너무나 힘이 든다”고 했다. 과연 빠르게 변화하는 현대사회와 노쇠함, 지루함이란 말이 어울리는가? 이보다 더 빨리 변화하고 있는 21세기 4차 산업 혁명 시대의 오늘과 내일은 이 단어들과 어울리는가? 결국 윌리엄 맥나마라가 말하고자 하는 ‘지루함의 정체’는 세상의 변화와 발전이 채워주지 못하는 ‘영혼의 공허함’일 것이다.

켄 가이어의 ‘영혼의 창’이라는 책에 ‘여기 있다 보라’는 시가 있다. “아름다운 것을 보고 싶으냐? 내 삶의 기쁨이 무엇인지, 내가 무엇을 위해 사는지, 내 모든 삶을 가지 있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보고 싶으냐? 여기 있다 보라.”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인생을 정말 아름답게 만들고, 가치 있게 만들 수 있는 것이 무엇이나?

예측처럼 인공지능 로봇은 인간보다도 인간의 감정을 더 잘 이해하고, 인간의 감정에 더 잘 반응함으로써 인간보다 더 중요한 존재로 자리잡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인류애에는 천국과 지옥의 문이 놓여있고, 어느 문을 열고 들어 갈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인간의 선택에 달려 있다’고 그의 책 ‘사피언스’에서 경고한다. 과연 인공지능이 인간의 감정과 영적 영역까지 감당할 수 있을까? 만약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신이 되려는 인간’은 그 인간을 뛰어넘는 인공지능에게 종속되어 버릴 가능성이 커진다. 그런 미래가 펼쳐진다면 과연 인류의 미래는 천국일까? 지옥일까?

다음세대 신앙 양육 ‘성경153올람 운동’ 확산 중

구미교회, 매뉴얼 무료 제공… 전국 교회에 배부 성경의 핵심 주제 153개로 모든 세대 가치관 훈련

성도들에게 기독교적 세계관을 가르치고 다음세대로의 신앙계승 및 교회의 영적 활기를 불러 일으키기 위해 ‘성경153올람 운동’을 시작한 서울강동교회 구미교회(김대동 목사 시무·사진)가 이 운동을 전국교회와 나누고 있어 화제다.

‘성경153올람 운동’의 골자는 ‘말씀 선포’와 ‘가정예배’를 연계해 교회학교를 포함한 모든 세대들에게 가치관 훈련을 하고, 이 내용을 가정예배문으로 만들어 각 가정에서 가정예배를 드리게 함으로써 다음세대 신앙을 양육하는 운동이다.

성경에서 선정한 핵심 주제 153개를 3년 여에 걸쳐 진행한다.

‘올람’은 예레미야 6장 16절에 나와 있는

‘옛적 길’로 번역된 단어의 히브리어로, 하나님께서 창조 때부터 정해 놓으신 길이며, 우리 인간들이 걸어가야 할 본래적인 길을 의미한다.

김대동 담임목사는 포스트모더니즘, 맘모니즘, 세속주의, 쾌락주의, 이기주의 등 현 세상풍조의 도전과 다음세대 문제의 심각성을 극복하기 위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처음 가지셨던 하나님의 원래계획을 회복해 처음 계획하신 ‘올람’, 즉 옛적 길을 따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를 만든다는 목표로 이 운동을 진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현재 구미교회에서는 많은 가정들이 이 운동에 동참하고 있으며, 어떻게 가정예배를 드릴지 몰라 고민하던 젊은세대의 가정으로



구미교회는 이 운동을 한국교회에 전하기 위해 교회 홈페이지(www.gumee.net)와 카카오톡 채널(성경153올람 검색)을 활용해 모든 자료를 공유하고 있다.

또한, 보다 자세한 자료를 요청하는 이들이 많아 성경153올람 운동의 매뉴얼 ‘이제 이 길밖에 없습니다’를 제작, 이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이미 수 백개 교회에서 자료를 요청해 배부했고, 장신대 총동문회와 학부동문회의 요청으로 담임 김대동 목사가 세미나에서 목회특강을 하는 등 운동이 점차 확산되고 있는 추세다.

표현모 기자



설교를 위한 성서읽기

산상수훈의 보화를 찾아서 ⑦ 마 5:33~37

맹세에 대하여

네 번째 반제로 제시된 주제는 맹세이다. 맹세는 고대 종교와 철학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진 주제로 구약성서에도 이와 관련하여 215번이나 언급되어 있을 정도로 관심이 지대했다.

맹세는 자신의 다짐과 확신을 일월성신 등의 우주적 권위나 신들의 이름에 의탁하여 인증받으려는 시도로 때로 종교적 제의나 희생제사 등이 동반되며, 주술과 결탁하기도 한다. 맹세 행위의 이면에는 인간의 언어에 대한 신뢰 문제가 깔려 있으며, 이는 결국 말로써 표현되는 인간의 실존적 연합을 전제하고 있다. 또한 고대 그리스-로마 문화 가운데 맹세의 적절한 사용의 타당성과 함께 그 오남용의 문제도 많이 거론되었고, 이는 유대교 전통에서도 동감하는 부분이었다. 다만 구약성서 이후 유대교 전통에서는 맹세할 때 하나님의 이름이 오남용되는 것과 맹세의 잘못된 사용이 이웃을 향한 거짓 증언으로 드러나는 점을 특별히 경계하였다.

당대 그리스-로마 전통이나 유대교 전통의 통상적인 사례에 비해 맹세에 대한 산상수훈의 가르침은 파격적일 정도로 예외적인 특징을 보여준다. 유일무이한 전통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이다. 맹세하는 행위 자체를 아예 금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어떤 맹세가 정당하고 유용하며, 어떤 맹세가 피해야 할 나쁜 경우인지를 구별해 그 인식과 실천의 적절성에 초점을 맞춘 여타의 사례와 달리 극단적인 선택을 지시한 셈이다.

이를 위해 인용한 종래의 맹세 관련 전통은 “헛맹세를 하지 말고 네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는 것인데 이와 같은 구절은 구약성경에 나오지 않는다. 가장 근접한 구절로 거론되는 본문은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는 레위기 19:12이다. 십계명에서도 이 뜻을 함하여 거짓으로 증언하지 말라는 조항이 있을 뿐인데(출 20:16, 신 5:20), 이는 맹세나 서원과 유언이 좀 다르다. 그렇다면 산상수훈의 이 본문은 어디서 인용된 것일까. 그 출처와 관련하여 가장 근접하는 것은 후대의 잘 알려지지 않은 유대교 문헌으로 다음의 어록이 예시된다: “부자불식간이든, 의도적이든, 거짓 맹세를 하지 말라. 영원하신 하나님은 맹세한 자가 누구이든 거짓 맹세자를 미워하신다”(Ps-Phocyl. Sent. 16). 이로 미루어 이 인용문은 구약성서의 수많은 맹세 관련 교훈들을 요약, 정리한 헬레니즘 시대 유대교 전통의 어록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아예 맹세 자체를 하지 말라고 금하는 명령을 내리신다. 당시 사람들이 맹세의 권위 있는 매개체로 불리던 하늘과 땅, 나아가 예루살렘과 머리를 내세워 도무지 맹세라는 걸 하지 말라는 것이다. 이러한 극단적인 맹세 금지의 사유가 무엇이었을

까. 비록 하나님의 이름을 그 맹세의 도구로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저러한 매개체들을 내세운 그 맹세가 불발하여 헛된 기만으로 판명될 경우 그것들이 오염됨으로 말미암아 결국 그것을 지으신 하나님의 명예가 훼손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인식에는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고 그 하나님은 모두 하나님의 신성한 권위를 머금고 있다는 창조론적 통찰이 깃들어 있다. 그래서 하늘을 ‘하나님의 보좌’로 보고 땅을 ‘하나님의 발등상’으로 간주하는 시적인 상상력이 동원된 것이고, 예루살렘을 큰 임금 곧 다윗의 도성으로 존중하는 역사적 상상력이 작용한 것이다. 나아가 인간의 머리도 하나님이 만들어 우리 힘으로 한 터럭도 그 색깔을 회고 겸게 만들 수 없는 하나님의 고귀한 작품임을 역설한 것이다.

이 단락의 본문 중에서 가장 오해와 왜곡이 심한 구절은 마지막 37절이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가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많은 독자들, 설교자들이 이 구절의 교훈을 옳음과 그름에 자신의 입장을 확

고하게 밝히고 옹고박하게 표현하라는 뜻으로 새긴다. 여기에 차든지, 뜨겁든지 해야지 미적지근하거나 우유부단하지 말아야 한다는 교훈이 덧대어지기 일쑤다. 그러나 이 구절은 그런 뜻과 전혀 무관하다. 이 구절은 앞서 제시된 맹세하지 말라는 주제의 결론구에 해당한다. 여기서 ‘올라’, ‘아니라’로 번역된 말은 어떤 사안의 옳고 그름을 일컫는다고 보

다 질문에 대한 답으로 흔히 말하는 ‘예’와 ‘아니오’다. 우리의 언어는 인간의 실존적 연합함으로 인해 그 자체가 취약하여 맹세의 수단으로 사용한다는 것은 무모하다. 그러나 간명하고 담백할 수는 있으며 또 그래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누가 뭐라고 묻거나 의견을 구하면 ‘예’ 또는 ‘아니오’라고 간단하게 답해야 한다. 그것을 잘 듣지 못했거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 한 번 더 강조하여 ‘예, 예’ 또는 ‘아니오,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 자신의 신념이나 입장, 의견이나 주장을 확고하게 밀어붙이기 위해, 자꾸 과장되게 말하면 그것이 곧 맹세로 빠져드는 지름길이다.

‘정 내 말을 못 믿겠으면 내 손에 장을 지져’ ‘내가 성경에 손을 얹고 맹세할게’ ‘하나님 앞에 맹세하면 믿을 수 있겠지’... 이런 식으로 장담하다 보면 인간의 언어에 허영과 허세의 거품이 끼고 결국 자신이 지키지도 못할 허황하고 왜곡된 언어로 타락하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36절은 맹세로 빠질 심리적 단서와 동기를 아예 제공하지 말고 그 싹을 잘라 버리라는, 앞의 반제들에 제시된 교훈과 동일한 패턴의 메시지로 읽어야 한다.

차정식 교수 한일장신대학교

Y칼럼



신동수 청년
세우는교회

예상치 못한 축복과 변화 선교회에서 경험

사랑, 삶으로 배우다

님의 섬리에 감사하며, 2022년도에 학교가 크게 쓰임받기를 기대한다.

또한 선교회를 통해 만남과 교제도 큰 축복이다. 나로서는 만날 수 없는 많은 선교사님과 목회자분을 선교회를 통해 만났다.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통하여 이뤄가시는 일들과 그 다양하고 놀라운 사역들, 그리고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그분들의 하나님에 대한 반응들을 직접 보고 배울 수 있었다. 이는 그 어떤 책이나 강의로도 접할 수 없기에 이 만남에 참여해 뒀어 참 감사하며, 앞으로 더 깊어지고 넓어지기를 기도한다.

끝으로 지금은 환자가 아닌 함께하는 삶을 살게 됐다. 그건 나의 옳은 소견대로 살 수 없으며, 이전에는 인지조차 못한 나의 어그리진 모습을 보게 한다. 하지만 그것을 넘어 공동체로서 서로 격려하고 성장시키며, 사랑을 주고 받음으로 결국 주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삶으로 배우고 익혀간다. 이 가족같은 공동체를 만나 함께하게 하심에 감사드리며, 앞으로 어떤 인도하심이 있을지 그 선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오늘을 산다.

④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

이곳 CNCC선교회와 함께하며, 이전에는 그럴 볼 수 없었던 일들이 내게 펼쳐지고 있다. 그중 첫 번째는 M.Div과정을 시작한 것이다. 과거에 더 이상의 공부는 없으리라고 단정지었던 내게 이사와 50장 4절의 학자에 대한 말씀은 마음에 큰 울림이자, 비전이 되었다. 주님께서 벌써 5학기의 등록금을 채워주시는 은혜와 이그심은 참 감사하다.

다음으로는 이전 교사로서의 삶을 내려놓고 선교회에 왔을 때, 다시는 선생님을 하게 되리라 생각지 않았다. 하지만 2020년 1월, 미국 캠프와 멕시코 선교지에서 현지 아이들을 위한 대안학교 개교에 우리 팀이 교사와 스태프로 10일간 협력했고, 이를 계기로 세우는교회 부설 CNCC국제학교가 시작됐다. 교사의 역할을 다시 하게 된 것이다.

교사로서 학생 한 영혼 한 영혼을 돌보고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교사에게 주신 큰 선물이라고 생각한다. 이를 계속 누릴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